

vol.136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Special News

언론중재위원회

2011년 국정감사 수감

언론중재위,

부산토론회 개최

피해구제보도문 개선소위 결과보고



10

2011. October

- 03 이달의 주요뉴스
언론중재위원회, 2011년 국정감사 수감
- 04 국감중계
“포털 등 인터넷 기반 매체로 인한 피해확산방지대책 강화”
- 06 위원단상
막힌 회랑(回廊)-개성
- 07 피해구제보도문 개선소위 결과보고
피해구제보도문 실효성 향상을 위한 기준 마련돼
- 08 직원마당
나의 제주도 여행기
- 09 기고
왕따 없는 세상을 위해!
- 10 이일환의 음악의 발견
김창완 밴드 ‘아이쿠’
- 11 가을 갤러리
- 12 위원동정
- 13 위원회 소식
- 14 위원회 통계 현황

언론중재위원회, 2011년 국정감사 수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9월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2011년도 국정감사를 받았다.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권 위원장은 기관장들을 대표해 증인선서를 한 후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피해구제보도문의 주목도 향상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론피해구제제도의 실질적 개선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지난 2009년 8월부터 포털에 대한 조정중재신청이 가능해진 이후 2년의 시간이 지난만큼, 포털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미비한 부분의 보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국감현장 및 서면질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4~5면에)

언론중재위, 부산토론회 개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9월 5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언론분쟁의 대체적 해결방식에 관한 개선방안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산중재부 신우철 중재부장(부산지법 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부산중재부 신용도 위원(변호사)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신 변호사는 “언론분쟁해결에 있어 당사자 간에 자발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전문적 식견을 가진 중재부가 인내심과 열정을 가지고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권성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중재부의 조정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증거조사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털 등 인터넷 기반 매체로 인한 피해확산방지대책 강화에 여야 한 목소리 손해배상액과 피해구제보도문 현실화에 대한 요청도 잇달아



▶ 문방위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기관장들. 왼쪽부터 한국방송광고공사 이원창 사장,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성준 이사장, 한국관광공사 이창 사장.

포털에 관한 제도개선 필요성 강조

지난 2009년 8월 언론중재법이 개정되면서 뉴스전달기능을 수행하는 강력한 미디어로 자리잡은 포털에 대한 언론피해구제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포털에 대한 언론피해구제제도에 있어 여전히 미비한 점이 있다는 데 대해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심재철 의원은 “포털이 기사제공언론사의 원보도 제목과 다른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기사를 전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현행법상 포털에 대해 시정권고가 불가능한데 포털에 대해서도 시정권고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성호 의원도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지만 같은 기사를 매개하고 있는 포털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포털의 부실한 알림표시의무 이행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됐다. 언론중재법은 포털에 전재된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될 경우 인터넷을 통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기사에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성호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가 규칙을 통해 포털 기사제목 하단에 알림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규칙이 아니라 언론중재법에서 표시의무이행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며 “포털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에도 알림표시의무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여러 의견을 종합해 포털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언론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

언론피해구제보도문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진성호 의원은 정정과 반론보도문이 원보도에 비해 주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피해구제보도문의 원칙을 마련해 실효성있는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재운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액이 법원의 11%에 지나지 않는데, 손해배상제도의 실질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권성 위원장은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재위원 워크숍,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손해배상액기준개선 소위원회 등의 연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건수 증가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져



문방위 전재희 위원장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



민주당 김재운 의원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언론중재법 개정 이후 급증하고 있는 신청건수와 관련된 질의도 있었다. 장병완 의원은 “최근 3년간 조정신청건수가 급증세를 보이는 반면 조정성립율은 낮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물었다. 권성 위원장은 “기사제공언론사와 조정이 성립되면 포털에 전재된 기사에 대해서는 심리전이나 심리 중에 피해가 구제돼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결과는 취하로 나타나지만 결과면에서 조정성립과 다를 바 없고, 신속한 피해구제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혜숙 의원은 피해구제율이 부풀려져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전 의원은 “손배청구의 경우 피해구제율이 80%에 이르는데, 금전지급 이외의 방법이 피해구제율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피해구제율 산정방법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청구권에 대한 기계적 대응보다는 유연성을 살려 실질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ADR의 취지”라고 설명하며 “피해구제율은 유감표명, 기사삭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당사자들의 분쟁이 실질적으로 해결된 사안들이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부풀려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시정권고 효율성에 대한 지적 잇달아

시정권고의 효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언론사로 하여금 시정권고를 수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김을동 의원의 의견을 필두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매체 수에 비해 시정권고를 위한 모니터링 요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심재철 의원의 지적이 이어졌다. 심 의원은 “시정권고는 잘못된 보도가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손실을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임에도 불구하고 746종의 언론을 모니터링하는 요원이 26명에 불과하다”며 모니터링 요원 증원 등 시정권고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철우 의원은 언론의 자살관련 묘사 등으로 모방자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언론의 자유를 압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관광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입법개선 및 효율적 제도운용으로 시정권고의 효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언론중재제도 홍보 확대 주문하기도

국감에서는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한 홍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기도 했다.

심재철 의원은 “포털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언론중재법이 바뀐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은 물론 기자 5명 중 1명이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홍보 예산 확보와 아울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언론인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도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언론관계법에 대해 기자들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수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개인인데, 이런 경우 기사의 신뢰도 확보보다 개인의 피해확산 방지가 우선”이라고 전제하고 “인터넷을 통해 사적 영역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심리중임을 알리는 문구 표시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3차 질의까지 이어지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언론중재제도의 보완과 발전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민주당 장병완 의원



민주당 전혜숙 의원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막힌 회랑(回廊) -개성

조 동 수 위원

광주중재부
광주·전남 언론인회 회장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난 9월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남북문화교류협력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취임식 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도 개성에 있는 만월대 발굴을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 만월대 발굴은 2007년 남북이 함께 시작했으나 2010년 5.24 대북제재조치로 중단되었다.

신임 최 장관이 밝힌 많은 시책 중 이 부분에 유독 관심이 가는 것은 개성 때문이다. 나는 만 6세 때 개성에서 3개월 간 살았다. 아주 어린 시절, 아주 짧은 기간이다. 그리고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도 가끔 송악산과 선죽교가 아련히 뇌리에 떠오르곤 한다.

미국 작가 헤밍웨이의 작품을 읽다보면 아프리카 꿈을 꾸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작가 자신이 검은 대륙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나는 학창 시절 국사 시간에 개성 이야기가 나오면 휴전선에 막혀 못가는 그곳을 펍 아쉬워했다. 교과서에 나오는 선죽교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어린 시절 아버지 손잡고 답사하던 장면을 연상했다. 그렇다고 내가 실향민은 아니다. 내 고향은 호남이다.

여기서 개인사를 잠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고향에서 상업을 하시던 아버님이 해방 후 가족과 함께 상경, 장사 하시다가 6.25를 만났다. 내가 서울에서 초등학교 입학한지 3개월 만의 일이다. 아버님은 인민군 강제징용 위협을 느낀 나머지 개성으로 피난을 떠났다. 왜 하필 개성인가. 숙부님 가족이 그 곳에 살고 계셨기 때문이다. 당시 개성은 이북 아닌 이남 땅이었다. 38선이 송악산을 가로지르고 있지 않은가. 석 달 뒤 9.28 서울 수복으로 우리 가족도 서울에 귀환했다.

각설하고, 지난 98년 금강산 관광이 먼저 시작되자 남쪽의 많은 관광객이 다녀왔다. 그러나 나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차에 2007년 12월 개성 관광이 트인 걸 보고 마음이 동했다. 이듬해 4월 기회가 왔다. 설레는 마음으로 도라산 역에서 출입수속을 밟으며 만감이 교차했다. 전란 중에도 이런 절차는 없었다. 현재 휴전 상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평화 시인데 외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C.I.Q를 거처다니..., '남북출입 사무소(Inter-Korean Transit Office)'라는 간판이 생뚱맞

게 느껴졌다. 출입 '국' 사무소라고 부르지 않는 걸 그나마 위안 삼을 수밖에 없었다.

개성 시내에서 북쪽으로 27km 떨어진 박연폭포 가는 길은 웬지 을씨년스러웠다. 그날따라 부슬비가 오락가락한 탓이었을까. 폭포 근처 송악산은 그런대로 숲이 보존돼 있었으나 다른 곳은 뽕뽕이 산(북한 말)이었다. 유독 보호받는 수종은 잣나무라고 한다. 잣은 북한의 주요 생산품이다. 도로는 관광 지임에도 차가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비좁은데다 급커브가 많았다. 그러나 높이 37m의 폭포는 송도삼절 중 하나라고 할 만큼 절경이었다.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 천은 의구하되~'라는 야은(冶隱) 길재(吉再)의 시조가 떠올랐다. 선죽교는 어린 시절 본 그대로였다. 옛날보다 왜소하게 느껴진 건 내가 어른이 된 탓이리라.

13첩 반상기라며 자랑스럽게 내어놓는 한식으로 점심 먹을 때 죄책감 비슷한 것이 몰려왔다. 길가에 무표정하게 서 있던 군인과 깡마른 주민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군인들은 마을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한두 명씩 관광버스를 등진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주민들 왕래는 거의 볼 수 없어 개성이 큰 도시인데도 썰렁했다. 컬러 시대에 흑백 TV를 보는 듯 했다.

관광객들은 고적이나 명소도 좋지만 개성시내 관광을 은근히 기대했음직하다. 그러나 철저히 차단되어 지정된 곳 이외에는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었고 촬영도 엄격히 통제되었다. 관광객 중에는 외국인이 섞여 있었는데 의아스런 표정이었다. 개성 출신이라는 어느 관광객은 식당 옆 골목길을 가리키며 "저기가 우리 동네인데 가까이 가보면 안 되겠느냐?"고 안내원에게 사정해봤지만 허시였다.

우리 통일부에서 만든 팸플릿에는 '평화의 회랑 통일의 관문'이라는 표어가 쓰여 있다.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가 평화와 통일을 선도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관광길은 개통 7개월 만에 막혔다. 금강산과 함께..., 지금 이 회랑에는 찬바람이 감돈다. 무심한 철새들만 회랑 아닌 창공으로 남북을 넘나든다.

피해구제보도문

실효성 향상을 위한 기준 마련돼

류석창 팀장
조사팀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들과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받아야 하는 언론사 사이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그러나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주력하다 보니 피해구제보도문의 효과와 적정성에 대한 고려는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제된 보도에 비해 피해구제보도문의 크기는 너무 작았으며, 피해구제보도문은 독자들의 주목도가 떨어지는 고정된 정정란에 '바로잡습니다' 또는 '알려드립니다' 등의 제목으로 보도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나가봐야 잘못된 보도로 인해 침해된 명예가 크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불만도 제기 되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정정보도등 피해구제보도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7월 5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소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

학철 부위원장을 비롯해 전직 언론인 출신의 중재위원 7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2개월 동안 위원회의 조정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한 피해구제보도와 외국의 정정보도 사례 등을 비교분석했으며,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피해구제보도의 방향을 모색해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완성했다. 이 보고서는 조정에 의한 합의와 중재부의 결정시 작성될 피해구제보도문의 제목과 본문 형식, 활자 크기, 게재 지면과 방송 시간, 기타 매체별 보도 형식 등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구제보도문의 제목은 문제된 기사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사용해 제목만으로도 무엇에 관한 보도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둘째, 기사의 본문을 2단락 이상으로 나누어 게재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언론사 자체 고침기사와 구별하기 위해 기사 말미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보도'임을 표시한

다. 넷째, 피해구제보도문의 게재지면은 원칙적으로 문제된 기사가 보도된 지면과 동일한 지면에 게재한다. 다섯째, 방송의 경우에는 피해구제보도문의 방송시간대를 명확히 정하고,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자가 낭독할 동안 피해구제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계속 표시한다. 여섯째, 인터넷신문의 경우에는 피해구제보도문의 제목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 앞부분에 게재하고, 제목 게재의 지속시간을 반드시 지정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아울러 소위원회는 이 보고서가 원활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언론사들의 이해와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 필요하며, 각 중재위원들이 합의나 결정을 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규정화하는 등, 향후 피해구제업무 개선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달의
책

보도실무와 인격권

유일상 외 3인 지음 | 사회평론 | 508페이지



건국대에서 언론법을 가르쳐 온 유일상 교수와 한겨레신문 김이택 기자, 문화일보 정충신 기자, 매일경제 박정철 기자 등 언론 현장에서 일해 온 기자들이 함께 펴낸 <보도실무와 인격권>은 프라이버시권,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실명과 익명 보도, 언론중재제도와 관련해 각종 판례를 사례와 엮어 낸 실무서이다.

특히 김이택 기자가 집필한 '제2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발행한 『국내언론관계판결집』(제1집~15집)에 수록된 전·현직 국회의원과 언론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24건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김 기자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인에 대한 판결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실적 악의' 이론의 판례와 우리 판례에 나타난 상당성 법리를 비교하면서 현실적 악의에 대한 법이론을 우리 현실에 맞게 개조·수용해 언론과 정치인 간 명예훼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충신 기자는 '제4장 국가기관과 언론중재제도'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과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제도에 관한 실무상의 고민을 털어놓는다. 인격권 보호와 언론보도를 통한 알 권리 충족이라는, 갈등 관계의 두 권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기 위한 고민이 담겨있다.

나의 제주도 여행기

김민정
기사심의팀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얻게 된 즐거운 점 중에 하나는 대학 시절 보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그로 인해 보다 손쉽게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여행을 떠나는 것은 귀찮은 일이기도 하다. 먼저 주변 사람들이나 책자를 통해 여행지를 선정해야 하고, 수시로 비행기 편차리 사이트를 검색해야 하며,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깨끗한 숙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루한 웹 서핑의 시간을 감내해야 한다. 또 여행을 하면서 방문할 곳, 이동수단, 음식집을 찾는 것도 훌륭한 여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고도의 정신력과 정밀한 정보력이 필요한, 여행에 앞선 필수적 고행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행을 계획하는 이유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생각들을 할 수 있고, 일상에서 떨어져서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틀에 박힌 일상에서, 틀에 박힌 시야로, 틀에 박힌 판단을 하던 나를 반성할 수 있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미래의 내 모습도 그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낯선 장소에서 나와 다른 생각과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자신의 단점들도 고쳐나갈 수도 있다.

나의 최근 여행지는 제주도이다. 사실 처음 목표로 한 여행지는 제주도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처음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나서 우연히 반값에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파는 곳을 알게 되었고, 경비나 절약해야겠다는 심정으로 비행기 표를 구매하게 되었다. 숙소는 웹 서핑을 통해 게스트 하우스를 예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저렴한 비용으로 잠자리와 이동 수단이 해결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나의 여행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공항에 3시간이나 일찍 도착한 나의 과도한 부지런함(?) 덕분에 운 좋게도 앞선 비행편을 구하게 되어 예정 시간보다 2시간 일찍 출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성수기 토요일 오후에 얻은 제주도행 항공편의 빈 좌석은 비행기가 뜨기 어려울 정도의 폭우 덕택이었다.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요동치는 비행기와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비명 소리에 2시간 일찍 출발한 것이 행운은커녕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다행히 제주도에 도착하자 폭우는 그쳤지만, 다음 날 불어 닥친 황사는 또 하나의 복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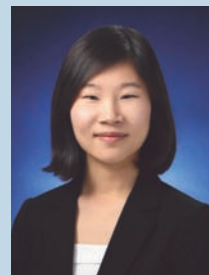
그렇다고 해서 세계 7대 자연경관 후보지이기도한 제주도의 매력이 반감되는 것은 아니었다. 제주도는 둘러 볼 곳이 많지만, 평소 특기인 걷기와 숨쉬기 능력을 십분 발휘해 나는 올레 1길을 걷는 '올레꾼'이 되기로 했다. 처음 올레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는 시선이 가는 곳곳마다 곧바로 작품사진이 되는 풍경 속에서 자유와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역시 잠시... 오늘은 제발 집에 있으라는 방송이 나올 정도의 짙고 독한 황사로 인해 숨을 쉴 때마다 입속과 콧속에서 모래가 잘근잘근했다. 더욱이 생수 한 병만 들고 시작한 올레길은 가도 가도 끝이 없었다. 식사를 하려고 계획했던 맛집은 이미 기억저편으로 사라지고, 제일 처음 보이는 식당에서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고 말았다. 또 음식점만 사전 조사했던 나는 몇 번이나 경로를 이탈해 되돌아오고 말았다.

장장 5시간에 걸쳐 올레길 탐사를 마쳤지만, 제주도를 언제 또 혼자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제주도를 보고 또 느꼈다. 급기야 저녁 무렵에는 몸져누웠고, 만실인 게스트하우스에서 단 한 번도 깨지 않은 채 아침까지 눈을 뜨지 못했다. 다음 날 나의 관광 코스에 대해 듣게 된 게스트하우스의 주인아저씨는 관광은 쉬어가며 하는 거라고 진심 어린 충고를 해 주었다. 또 나의 여행 이야기를 듣고 난 친구는 진지한 얼굴로 "이제 고생하는 여행은 그만둘 때"라고 조언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젊어 고생은 사서 하는 법, 여행은 발로 하는 것이라는 나의 지론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한없이 고생스러운 여행이었지만, 노랗게 핀 유채꽃과 파랗게 일렁이는 파도의 기억들은 일상에서 지치고 괴로울 때 나를 응원해주는 응원단으로 마음 깊이 자리 잡았다.

왕따 없는 세상을 위해!



정 지 은
충남대 국어국문학과

드디어 가을이 왔다. 차가울 듯 푸른 하늘과 아침저녁으로 느껴지는 선뜻함이 반갑다. 올 여름이 너무나 길고 더웠던 탓에 그 반가움은 더 커진 듯하다. 덩달아 가을을 준비하는 손도 즐겁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긴 옷을 꺼내고, 툭툭한 가디건도 하나 장만하고, 따뜻하게 마실 홍차와 커피도 사고,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따뜻하고 포근해지는 느낌이다. 몸을 데웠으면 이전 마음을 데울 차례. 이번 가을동안 읽을 책 준비하기! 가을은 검증된 독서의 계절 아닌가. 따가운 햇살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찾아온 창가에 앉아 책을 읽어야 할 때다. 그동안 읽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책을 찾아 가을 독서 목록을 만들어보자. 마음이 저절로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혹시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고민이 되는가. 그런 분들을 위해 재미있는 책 한 권 소개해보려고 한다. 이사카 코타로의 “왕을 위한 팬클럽은 없다”

제목에서부터 호기심을 유발하는 이 장편소설은 야마다 오쿠라는 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성장소설이다. 오쿠의 부모는 센다이 킹스라는 지역 야구팀의 완전 골수팬이다. 그들의 소망은 아들이 커서 센다이 킹스의 ‘왕’이 되어주는 것! 실력은 물론이고 스포츠 팀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승리에 대한 야망이나 노력도 없는, 이 기이한 야구팀을 일으켜 세워줄 왕과도 같은 선수 말이다. 이름을 ‘왕이 원하고, 왕을 원한다’는 뜻의 오쿠(王求)라고 지을 정도로 그들의 바람은 간절하다. 그리고 그 간절한 바람을 위해 오쿠에게 온갖 노력을 퍼붓는다. 그것들은 때론 너무 과해서 무섭게 느껴지기도 한다. 넘치면 탈이 나게 마련. 오쿠의 아버지는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오로지 아들만을 생각하다 저질러버린 그 일은 오쿠에게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뭉수 없는 꼬리표가 되어 돌아왔다. 어린 오쿠는 그 때문에 여가져서 괴롭힘을 당한다. 사람들은 몇 달 굶은 하이에나처럼 끈질기게 그 꼬리표를 물고 늘어졌다.

“저기 봐, 저 애가 중학생을 죽인 사람의 아들이야. 아니, 그보다 저 애도 사람을 죽였대. 사고로 처리하긴 했지만.”

너의 아버지가 경찰에 출두한 것이 벌써 1년 전 일인데도 아직껏 뒤에서 손가락질을 받는다. 당시 ‘살인범의 아들은 슈퍼 고교 야구 소년’이라고 주간지며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떠돌아다녔다. 네가 사는 아파트 주위를 에워싸고 온갖 진위를 알 수 없는 증언을 흘려보냈다.

슈퍼 야구 소년. 그렇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오쿠가 야구의 천

재라는 사실이다. 그냥 천재도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뛰어난 천재. 초등학교 때 이미 프로선수의 공을 홈런으로 받아쳤을 정도니 말 다했다. 이건 뭐 쳤다하면 홈런이다. 그런데 그의 엄청난 야구 실력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른다. 감탄이나 박수를 받을 수준을 넘어서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정했다. 그를 무시하기로. 오쿠는 압도적인 성적을 내고서 신인상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된다. 살인자의 아들이란 꼬리표와 함께 과한 천재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한 덩어리가 되어 눈을 홑뜨고 오쿠를 ‘왕따’시키는 사람들. 내내 당하기만 하는 오쿠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절로 든다. 아무 잘못 없는 어린 오쿠에게 왜 이렇게 매정할까.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런 매정한 상황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다수의 사람들과 그들의 공격을 받는 한 사람의 피해자. 굳이 누구누구의 자살 사건이나 인터넷 악성 댓글, 마녀사냥 같은 단어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그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대중의 귀가 되고 눈이 되는 언론의 역할이 새삼 중요하게 느껴진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언론의 한마디 한마디가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퍼지는 지금의 시대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언론의 기사와 보도는 강한 힘을 갖고 있다. 잘못 없는 사람을 왕따 시키지 않기 위한 객관, 중립, 정확. 무거운 역할과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만큼 꼭 지켜줘야 될 것들이다. 언론으로 인해 받은 피해를 구제하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참 다행스럽게 느껴진다. 언론과 대중 사이의 바른 다리 역할을 하는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존재가 오쿠에게도 있었다면, 그의 삶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소설 끝부분 이야기로 글을 마무리 지을까 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야구를 하는 오쿠. 매일 열심히 몸을 단련하고 배트를 휘두르던 그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다. 팀이 역전을 하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순간, 그가 홈런을 치기만 하면 우승을 하는 상황이다. 모든 것이 오쿠의 배트에 달려있는 그 때. 타석에 나서려는 그를 누군가 칼로 찌른다. 오쿠 뒤를 지겹게 쫓아다니던 그 무엇이 끝내 날카로운 칼이 되어버린 걸까. 오쿠는 놀랐지만 그래도 타석으로 걸어 나간다. 칼에 찔린 한 남자와 그를 바라보고 있는 관중들. 공은 던져졌다. 과연 그는 홈런을 쳐낼 수 있을까? 당신은 어떻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참 궁금하다. 꼭 소설을 읽어보길 권한다.

본 기고문은 언론중재위원회 트위터와 페이스북 기고문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입니다.



이일환의 음악의 발견

김창완 밴드 ‘아이쿠’

이일환(음악방송 Satio PD)

팔레스타인 출신 미국인으로, 저서 「오리엔탈리즘」을 통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에드워드 사이드가 백혈병으로 2003년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만지던 원고는 '예술가의 후기 스타일'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사후에 이 원고는 「말년의 양식에 관하여 On Late Style」라는 이름의 책으로 발간되었다. 이 책에서 사이드는 모차르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글렌 굴드, 브리튼 등의 음악가를 다루면서 그들의 말년에 펼쳐진 활동과 작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사이드는 예술가들의 말년에서 기대되는 조화롭고 성숙한 경지보다는 오히려 불안한 모습, 균열과 모순에 주목했다. 그는 '득도한 거장'의 모습이 아니라, 포용적이지도 않고 화해도 거부한 채로 때로는 파국으로 치달는 불안한 예술가의 모습에 더 매료되었다.

평생에 걸친 미학적 노력이 말년에 이르러 성숙해지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화롭지 못하고 평온하지 않은 긴장'을 만들어낸다면? 그러한 긴장은 아마도 예술가 본인과 감상자들을 새로운 국면으로 인도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사이드는 "반대 방향으로 맞서는 두 힘을 팽팽한 긴장 속에 묶어 둘 수 있는 것은,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오류 가능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노년과 망명으로 인해 신중한 확신을 얻은 예술가가 가진 성숙한 주체성"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긴장은 현실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가요계에서도 드물게나마 이런 '말년의 양식'을 엿볼 수 있는 가수를 만날 수 있는데, 김창완이 그 중 한 명이다.

김창완은 2008년부터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 '김창완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2장의 미니 앨범과 1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했다. 이미 산울림 활동으로 기념비적인 족적을 남긴 김창완이 젊은 친구들과 새로운 음악을 한다는 것은 '못하면 망신, 잘해야 본전'에 그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음악을 들

어보면 그것이 기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에 발표된 1집 「Bus」는 김창완 밴드의 첫 시즌을 대표하는 앨범이자 그의 '말년성'을 엿볼 수 있는 앨범이기도 하다(올해 발표된 미니 앨범 「Darn It」부터는 기타리스트가 교체되고 음악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새 시즌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김창완은 사랑을 갈구하고, 서툰 감정에 흔들리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당혹스러운 순간에도 노출된다. 즐거울 때는 한 없이 즐겁다가도 화가 나면 분을 식이지 못하고 소

리친다. 음악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곡에서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한 듯한 회고적인 음악을 들려주다가 다른 곡에서는 베테랑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미숙한 느낌으로 노래하기도 한다(최근 앨범 「Darn It」에서는 정도가 더한데 〈나는 가수다〉로 대변되는 가창력 중심의 음악관에 대한 비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낭패감 내지는 당혹감을 그대로 드러내는 감탄사를 제목으로 한 〈아이쿠〉를 들어보자. 이 노래는 익숙하던 누군가 갑자기 어색하

고 낯설게 느껴지는 당혹감을 담고 있다. 부모거나 자식일 수도 있고 혹은 남편이거나 아내일 수도 있고, 친구이거나 연인일 수도 있는 그 누군가가 갑자기 어색해졌을 때의 느낌, 그리고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당혹감을 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시간과 나이에 관계없이 찾아오는 걸까? 가사에서 느껴지는 당혹감과 다르게 보컬과 음악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듯 낮게 드리워져 있다.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쪽은 기타이다. 화려한 장식은 없지만 간주와 후주에서 기타는 빛나는 음색으로 가사보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정리되지 않은 당혹스러운 감정을 정면으로 다루면서도 음악적으로는 숨씨 좋게 마무리해내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지속될 김창완의 후기 스타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기대된다.





가을 갤러리

photo by 정 상 용

서울제2중재부 중재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동호회 회장
'89 대한민국 사진대전 우수상 수상



도시 틈바구니 여린 생명에도 이리 화려한 기운이 깃들어 있으니
- 한강 둔치에서



조름 보드라운 햇귀에서 한여름을 내리쬘 염천 햇발까지
시간을 녹여낸 초가을 단풍 - 광릉 수목원에서

활력 충전 박대리

<꿀볼견>
우대석

요새 아주 꿀볼견인
사원들이 많아요!
변변하게 매일 빈대 볼질 않나,
술술 게으름 피우질 않나,
그 뿐인가? 눈치는 어디 갔어?
누구는 또 여자 밝힌다고
사내에 소문이 짝 났었구만!

빈대형 만성피로형 눈치제로형 꿀볼쇠형

온갖 아부는
기본에,
있는 소문
없는 소문
다 떠벌리고
다니는
입 반 간부!!

여사원에겐 천사인 적
남 사원에게엔 악마로
돌변하고,
갈구는 건 잘하면서
힘든 일은 어쩔게든
다 빠지려는
암제 같은
책임자!!

확성기형 (15.6%) 암제형 (29.6%)

그런 생각으로
회사에 다니니 발전이 없는 거야!!
결만 번지르르해서 실속이 없어!!
내가 너무 만만하니까
그런건가?

오늘부터 무조건 야근!
아파도 나와! 월차, 반차, 회식
무조건 나까지 결재 출려!
더러우면 짐 싸!
난 퇴근할 테니 일해!
와잇 나우!

1위
독물장군형 (35.5%) 목퇴근
5분 전에
일 시키면서
잔말 뒀다.

COMMISSIONERS



▶ 참전유공자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권성 위원장(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 이사장)은 추석연휴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6.25 참전유공자의 가정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권 위원장과 봉사단은 낙후된 주거환경을 정돈하고 노후설비를 새로 설치했다. 권 위원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고생하고 계신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며 앞으로도 6.25 참전유공자 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봉사활동은 YTN 정기캠페인 ‘나누는 기쁨, 돌보는 행복’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 한국언론정보학회 기획연구과제 공모작 선정



장하용 위원(서울제6중재부,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논문이 한국언론정보학회의 기획연구과제인 ‘한국매체산업 지형 변화와 저널리즘의 위기’의 공모작으로 선정됐다. 이에 장 위원은 지난 9월 16일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논문발표회에서 당선작 「경쟁의 심화에 따른 한국 저널리즘의 변화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발표했다.

▶ 수원시와 시민배심법정 운영 MOU 체결



위철환 위원(경기중재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수원시와 ‘시민배심 법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민배심법정은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갈등이 생겼을 경우,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아주대와 공동으로 시민배심법정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토론회 사회



한진만 위원(강원중재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9월 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편성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았다. 또 한 위원은 지난 8월 30일 한국언론학회가 주관한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 50년: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기도 했다.

▶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시대 여성과 여왕이야기’ 강연



김정숙 위원(대구중재부, 영남대 국사학과 교수)은 9월 27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개최한 ‘박물관 여성 문화강좌’의 첫 강의를 맡았다. 이날 김 위원은 ‘신라시대 여성과 여왕이야기’를 통해 신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 광주시의회 ‘지역신문 발전지원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기조발제



김덕모 위원(광주중재부,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9월 20일 광주시의회가 개최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의 기조발제를 맡았다. 김 위원은 ‘지방언론 활성화에 위한 지역신문 지원조례의 필요성’을 주제로 지역사회발전과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 신문거래법, 지역신문지원 특별법 등 법적제도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 전북대학교 ‘형사재판실무’ 강의



정재규 위원(전북중재부, 전주지법 부장판사)은 9월 1일부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한다. 정 위원은 검임부교수로서 2학년 과정의 ‘형사재판실무’를 강의한다.

NEWS



교과서 수록된 위원회 관련 내용 대폭 확대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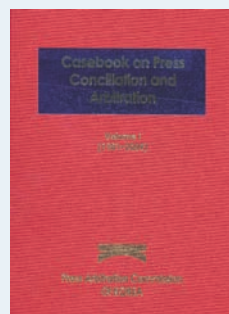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 개정판에 위원회 관련 내용이 한층 확대됐다. 위원회를 소개하는 내용은 '인권과 인권 보호' 단원에 수록되었는데,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 중 하나로서 잘못된 언론보도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갈등을 해결하는 인권보호기관으로 자세히 소개됐다.

계간 「언론중재」 가을호 발간



위원회는 9월 30일 계간「언론중재」가을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피해구제보도문과 손해배상조정결정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개최됐던 정기세미나 연구논문을 첫 주제로 삼았다. 이어서 다양한 대중매체들이 융합되는 환경 속에 언론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의 가능성, 여성연예인의 의도하지 않은 노출을 노골적으로 집중 보도하는 인터넷뉴스의 행태 분석 등, 연구논문과 각종 보고서가 수록됐다.

조정중재 30년을 담은 영문사례집 발간



위원회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언론조정·중재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그간의 대표적 조정·중재사례를 수록한 영문사례집을 발간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소개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위원회의 역사와 성과를 알리는 데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스위스·독일 언론사 및 피해구제기관 시찰 마쳐



권성 위원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은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와 독일의 언론기관(노이어 루체르너 신문 Neue Luzerner Zeitung, 쾰른도이치 신문 Süddeutsche Zeitung) 및 언론피해구제기관(독일언론평의회 Deutscher Presserat)을 방문해 해외의 언론피해구제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의 언론중재제도를 알리는 해외시찰을 다녀왔다. 이번 해외시찰의 자세한 소식은 11월 언론·사람에 실릴 예정이며, 스위스와 독일의 언론보도피해구제 현황에 관한 보고서는 12월 계간지 언론중재에 게재된다.

권성 위원장, '2011년 국제 차세대 글로벌리더 컨퍼런스'에서 특강

권성 위원장은 오는 10월 6일 안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2011년 국제 차세대 글로벌리더 컨퍼런스'에서 세계 각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연한다. 경기도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차세대 글로벌 리더와 기성세대 전문가들이 참석해 강연과 토론을 통해 세대간 소통의 폭을 넓히고자 마련됐다. 권 위원장은 정치인 권분야에서 '헌법재판과 정치'를 주제로 강의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2011년 9월, 언론중재위원회는...



● 조정·중재신청 처리 현황 (2011. 1. 1 ~ 2011. 9. 25기준)

위원회는 9월까지 모두 1,711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조정성립 544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85건(동의 50건, 이의 29건, 계속 6건), 조정불성립결정 189건, 기각 26건, 각하 8건, 취하 767건(534건), 계류 92건이며, 피해구제율은 71.4%로 나타났다. 피신청인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이 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문 482건, 인터넷뉴스서비스 437건, 방송 170건, 뉴스통신 52건, 잡지 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원회는 9월까지 90건의 중재결정을 내렸으며, 6건이 취하되었다.

〈조정신청 처리현황〉

청구 건수	본안 심리 건수	처 리 결 과										구 제 율		
		조 정 성 립	직 권 조 정 결 정			조 정 불 성 립 결 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본 안 성공률	조 정 성공률	피 해 구제율
			동 의	이 의	계 속				심리전	심리중				
1,711	1,168	544	50	29	6	189	26	8	417(311)	350(223)	92	83.8%	73.2%	71.4%

※ 본안성공률= $\frac{\text{본안성공건수(조정성립건수+직권조정결정건수+심리중취하건수)}}{\text{본안심리건수(조정성립건수+직권조정결정건수+조정불성립결정건수+심리중취하건수)}}$

※ 조정성공률= $\frac{\text{조정성립건수+직권조정결정중동의건수}}{\text{조정성립건수+직권조정결정건수+조정불성립결정건수}}$

※ 피해구제율= $\frac{\text{조정성립건수+직권조정결정 중 동의건수+그 외 정정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수}}{\text{조정성립건수+직권조정결정건수+조정불성립결정건수+취하건수}}$

※ 정정보도 등 피해구제 된 건수라 함은 정정이나 반론보도 또는 기사삭제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록상 근거가 있는 것을 포함함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중재신청 처리현황〉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 각	취 하	계 류
96	90	0	0	6	0

● 2011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기사심의 현황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는 선심위가 발족된 8월 27일부터 9월 25일까지 3차례 회의를 열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2건, 여론조사 보도 요건 위반 1건 등 3건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1건, 주의 1건, 권고 1건을 결정하였다. 이번 10월 26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지역은 9월 25일 현재 광역단체장 1곳, 기초단체장 11곳, 광역의원 10곳, 기초의원 15곳 등 총 37개 지역으로 확정되었다.

● 상담 현황

위원회는 9월 한 달간(2011.8.26~2011.9.25) 156건의 상담(중복상담 포함)을 처리했다. 상담 처리결과로는 조정절차 안내가 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상담 예정 14건, 타기관 안내 10건, 법적절차 안내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상담 건수가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송 42건, 일간신문 41건, 인터넷뉴스서비스 29건, 주간신문 26건, 뉴스통신 8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 교육 현황

위원회는 9월 25일 현재 119건의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을 실시했다. 대상 기관별로 보면 교육연수기관 41건, 언론사 30건, 인턴십 프로그램 19건, 지자체 8건, 공·사기업 7건, 대학 6건, 법무 수습교육 3건, 기타 5건 등이다.



위원회 소개

● 언론중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7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쉽고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정·중재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송,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등), 뉴스통신,
- 포털 등의 인터넷 뉴스서비스, 인터넷 신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등

● 신청절차

1. 신청기간

조정·중재 신청은 대상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신청인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공공기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언론중재아이넷(<http://people.pac.or.kr>)을 방문하시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이용방법과 관련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신 경우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하시어 담당직원에게 신청 내용을 직접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 02)397-3000, 3010, 3100, 3110

e-mail : counsel@pac.or.kr

홈페이지 : www.pac.or.kr

트위터 : [www.twitter.com/pac_news](https://twitter.com/pac_news)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5층

바른후보, 공정한 언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일,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 보도라고 판단될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등의 게재 또는 권고, 주의, 경고 등의 결정을 내려 공명정대한 선거보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11년 8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운영됩니다.



불공정 보도로 인한 선거후보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 의결하여 시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등의 게재 또는 경고, 주의 등의 결정을 내리고, 시정요구 사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선거후보자와 언론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사건을 심의합니다.

선거기사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후보자나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인용 또는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이 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TEL 02-397-3151~4 FAX 02-397-3089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이메일상담 counsel@pac.or.kr 온라인상담 <http://people.pac.or.kr>